FX Market Daily

2026-04-01

전일동향

전일 대비 14.40원 상승한 1,530.10원에 마감

3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4.40원 상승한 1,530.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20원 상승한 1,519.90원에 개장했다. 이란 사태가 출구를 찾아가지 못하는 데 따른 불안감이 환율 상승을 견인하며, 1,530.10원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18.0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63.9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19.90	1536.90	1518.90	1530.10	1530.50
엔화	948.80	964.36	948.02	963.92	-
유로화	1737.64	1769.42	1735.63	1767.60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35	-4.5	-9.55	-16.42
결제환율(수입)	-0.72	-2.91	-7.06	-12.8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종전 기대감에...1,50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530.10) 대비 23.45원 하락한 1,505.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이란 전쟁 긴장감 완화로 하락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주 시한'을 앞두고 양국 정상이 나란히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이란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란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추가 공격이 없다는 보장이 있을 경우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환율도 전일의 상승폭을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9거래일 연속 이어진 국내증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금일 환율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과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의 유입은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99.00 ~ 1514.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8385.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3.45원↓
	■ 美 다우지수 : 46341.51, +1125.37p(+2.4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89.0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5416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